

불교 넘어 시민단체로 새출발

부산전법도량 문화법인 '행복한 나눔' 발족



부산전법도량이 3월 문화법인체 '행복한 나눔'으로 새출발한다. 사진은 2012년 부산 연등축제에 연합으로 참가한 전법도량.

부산 불교계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부산전법도량(의장 원허, 해원정사 주지)이 문화법인체 '행복한 나눔'으로 3월 새 출발한다.

부산전법도량은 2007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포교방법에 대한 순수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디지털시대, 급변하는 사회 흐름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 다양해진 부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치유로서의 불교, 현시대의 포교방법에 대한 대안과 원력 속에 순수한 포교 교류 모임으로 태동했다.

현재는 12개 사찰이 회원사찰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전법도량은 매월 1회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회원사찰을 순회하며 해당 사찰이 시행하고 있는 수행,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공유한다. 또한 회원사찰간 연합활동, 여타 단체

다문화·탈북자 등 이웃 위한

나눔문화 확산 운동 중심점

들과의 연대활동 등으로 신선한 포교 바람을 일으키며 부산 불교계의 새로운 중심점이 되고 있으며 부산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지난 2011년 태동한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스님)의 출범 역시 부산전법도량의 활약과 참여가 빛을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부산전법도량이 지난 12월 부산시청에 사단법인 '행복한 나눔'이란 문화법인체로 등록하면서 부산불교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3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행복한 나눔' 초대이사장 원허 스님은 "행복한 나눔은

평소 문화예술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통해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평등과 평화의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설립취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사업, 소외 계층에 나눔문화 확산 및 후원사업,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홈스테이 추진 및 교육사업, 새터민 정착지원 및 봉사자 연계사업, 문화적 약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사업,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 및 정책 세미나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사업 등을 기본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나눔'으로 새출발 하는 부산전법도량은 해원정사(주지 원허 스님), 흥법사(주지 심산스님), 미타선원(주지 하림 스님),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 해남사(주지 만초 스님), 수도사(주지 일철 스님), 진흥사(주지 정범 스님), 연화사(주지 의정 스님), 대승사(주지 도영 스님), 정원사(주지 지각 스님), 해광사(주지 혜성 스님) 이상 12개 사찰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부산전법도량은 공익 단체인 '행복한 나눔'의 출범 이후에도 순수한 불교 포교 교류의 묘미의 취지를 살려 명칭과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행복한 나눔'의 창립총회는 다음달 3월18일 오후7시 부산 해원정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민화 배우며 한국의 情 느꼈죠"

삼광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민화전시회

다종교·다문화 시대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전시가 마련됐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설을 앞두고 다종교인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 "마음을 담은 그림"전을 개최했다.

2월 2일~12일까지 삼광사 지관전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백도용 목사, 주라길 천주교 수사, 김대선 원불교평양교구장을 비롯한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부산에 정착한 이주민, 시민불자 1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민화 작품들은 총 35점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통민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이번 전시까지 이르게 됐다. 출품작들은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 작품인 까치호랑이를 비롯해 문자도, 어해도 등 전통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무원 스님은 참가한 다문화인들에게 쌀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어려



삼광사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민화 전시회를 2월 2~12일까지 개최했다.

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빠른 지역정착을 위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잘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환희심 넘치는 도량 만들 터"

황해사 주지에 문덕 스님 취임

포항 황해사는 2월 5일 주지 이문덕 스님의 취임식을 4층 대웅보전에서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 포항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그리고 각 지역 주지 소임 스님과 회당장, 박성화 포항시장 등 각계 기관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문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은 수행의 공간으로 바른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세운 사회실천 문화공간의 요람이다. 이웃과 함께 환희심이 넘치는 도량을 만들 것이다. 수행을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며 의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회 梵語 시 낭송회

2월 3일 통도사서... 100여 명 참가

한국어어문연구원(원장 도용스님)은 2월3일 영축총림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제2회 범어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과 주한 인도대사관 스리 아차이 판드뿌리아 부관 대령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했다.

도용 스님은 "부처님 당시 언어로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환희심을 고취하고자 범어 시 낭송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용 스님과 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약왕보살 다라니, 제불방편력, 보현보살 다라니 등 범화경 계송을 범어로 낭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대웅전 앞 화주보살

어느 절이나 불사가 없는 절은 없다. 오래된 건물이 퇴락해서 대보수를 하는 경우, 기와가 낡아서 번외를 하는 경우, 기둥이 썩어서 갈아 넣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의 건물이나 구조물 혹은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시설물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전부터 사찰의 불사는 그 사찰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화주보살이 되어 불사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창이나 중건불사를 위해 건물을 해체하거나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상량문이나 연기문을 보면 무슨 연유 때문에 누가 언제 시주를 했

며, 그 당시 주지스님은 누구이고 화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사찰의 불사는 일차적으로 그 절의 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태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찰에서 불교대학이나 박물관대학,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불사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찻집이나 서점,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을 불사금으로 쓰기도 한다. 이것을 보면 과거에 불자들에게만 의지했던 불사금 마련이 점차 사찰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사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기와를 시주받는 경우가 있다. 기와에 소원을 적어 그 기와를 사찰에 봉납하는 방법인데, 보통 기와 한 장에 만원 정도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인지 여러 사찰에서 불사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사가 없어도 일년내내 기와 시주를 받는 사찰도 있어 절에 가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한다. 더구나 사찰의 가장 중요한 대웅전 마당에도 판을 펼치고 기와시주를 받는 사찰도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 사찰의 중심공간은 다양한 신앙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존송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기와시주를 통해서 불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복전을 일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소속 사찰의 불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와시주를 받는 방법은 조금 더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불사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웅전 마당에서 기와시주를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충남 7사찰

참선지혜

활인선원의 3일간의 깨달음

선회 3일, 수련회 6일 - 금강단식

<봄방학 특별>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상생활의 갈등과 어렵고 힘든 삶을 참선지혜로 거뜰하게 해결하세요.

금강단식 효과 지대함 면역성 피부미용질환 금연금주간단해결 고혈압당뇨 각종질환 정신예방치유 다이어트 1일최고 3kg

선회 3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수련회 6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지혜의 확장-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크고 작은 가정과 직장 대인관계 등 일상에서 겪는 생활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를 확장하는 길이다. 그것이 높은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겪는 물질 돈 이성 스트레스 취업 직장동료·상하관계 가족관계 제반 문제와 갈등을 몸매 배어있는 관행에 맡기지 말고, 지혜로 접근하다보면 의외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왔던 어렵고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이 신기하리만큼 가볍게 해결되고 가뭄해진다.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통합검색 '활인선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